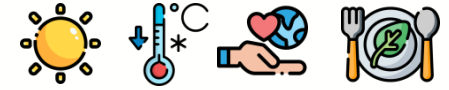




더 자스민 일보(一步)

독자의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



- 글은“[밑줄 클릭](#)”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Since 2020

[인터뷰] 퇴근 말고 “퇴사”(전업창업자 이야기)



퇴사 40일차를 맞이하여, 자스민일보에서는 손은경 작가를 인터뷰 하기로 했다

바야흐로 퇴사의 시대인 듯하다. 필자의 지인인 ‘아나’는 올 1월 십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또래 이대리도, 경미도. 그렇게 다들 퇴사자가 되었다. 필자 주변의 일만은 아닌 듯 했다. 그간 이토록 긴 사직행렬이 줄을 잇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퇴사를 고하거나 지르는 추세로 보인다. 여기 손은경 작가도 마찬가지. 지난 3월 18일, 직장생활 12년 차에 퇴사행렬에 합류했다. 요즘은 주로 집에서 작업한다던 그를 떠올리면 ‘퇴사자 in the house’라는 노래를 흥얼대게 되는데, 전업창업자로 전향한 40일은 어떠했는지, 다음은 그의 퇴사 40일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 직장인의 로망 아닐까 한다. 종속에서 벗어났다는 자유와 내 시간 내 멋대로 꾸릴 수 있다는 분방함과 때로 늦잠을 잘 수도 있다는 꿈꾸던 삶의 실현이 바로 그곳에 있는 듯하다. 허나 “물속에 말고 바다에 갈래요”라고 바다에 이른 젊은 물고기가 말했다. **프리랜서의 삶** 또한 만만한 것은 못 되는 듯하다. 생계유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회 뿐인 모양이다. 다음은 프리 5년 차 박현아 작가 이야기다.



2022 5월

글쓰기 취적의 달

5월 맛이 글방 소식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은 글방 모임으로 분주할 듯하다. 여러 글의 형태로 글방자카님들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임 다수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작가처럼 : 비유 & 언어의 참신한 조합
- 술술 잘 읽히는 글, 쓰기
- 일기가 에세이 되는 마법
- 조사의 맛

새 연재 소식 : 시리즈 “지요”



출처 : 배추도사 무도사 오름과 바름편

1118(일일일발(전), 일상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하다)의 뒤를 이은 새 연재 소식. 시리즈 “지요”이야기다. 마치 구전 동화를 듣듯 우리 삶의 조각을 담아낸 연재물이다. -하지요, -있지요, 그렇다지요. 따위의 어미를 특색으로 한 시리즈 “지요”, 블로그와 브런치 동시에 연재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급과는 먼
우리의
창작일지라도

3만원의 고료를 받으며 장작 12시간을 꼬박 썼다. 아무래도 고료 때문은 아니었고 작가의 글 욕심, 이 때문이었으리. 시급과는 먼, 그러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창작의 길을 걷고 있다.



퇴사 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는 사직하겠다는 나를 말리고 싶던 것이었다. 이십 년도 전한 차례 흥역을 알아 본 그로서는 참아 보라고 하고 싶던 것이다. 그러나 굳게 다문 입은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잘한 결정이기를 바라주었기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스페셜 특강 소식

- 주제 : **뻘한 글쓰기가 지켜울 때**(제1탄-인터뷰형 글쓰기)
- 날짜 : **2022.05.18(수) 밤 9시** ([자세한 안내](#))

